



2019년 12월 15일(제959호) 대림 제3주일(지신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지신,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시기의 첫 번째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따지고 벌을 주는 무서운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심판자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대림 3주를 자선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로써 보살펴주셨으니, 우리도 사랑과 자비로써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 듯합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사는 낙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자선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닦은 이 길이 다른 누군가에게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이웃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다음을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비와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 배려로써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생하며 살기에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는 이 고생이 자신에게 더 큰 선물로써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송재원(인드레이) 신부  
상요섭(의무사)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35,1-6ㄴ,10

**회 록 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 2 독 시** 야고 5,7-10

**복음 본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마태 11,2-11

**영 성 제 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이일인 읍



성인명: 이일인 읍 (李日彦 Job)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767-1839년

충청도 홍주의 대벌 마을에서 태어난 이일인(李日彦) 읍은, 1801년 이전에 아버지 점손(占孫)에게서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의 관명(冠名)은 태문(太文)이었다.

이 읍은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경상도 안의로 유배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관장의 눈 밖에 나서 다시 옥에 갇혔고, 물도 얻어먹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10년을 갇혀 있는 동안 그는 갖은 모욕과 학대를 받았으나, 묵묵히 참고 따름으로써 참다운 신자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관장의 허락 아래 개인 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되었다.

1815년부터 이 읍은 안의로 찾아온 아내와 함께 생활하였다. 1826년 5월에는 연금에서 풀려나 전라도 임실의 대판이라는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여기서 그는 교리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듬해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이 읍의 아내는 그에게 피신을 권유하였으나, 그는 이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에 순교하지 못한 것이 분해 죽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처럼 궁벽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가 없으니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탄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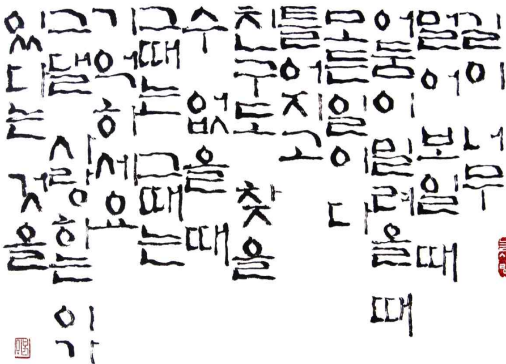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을 때에 전주 포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이 읍을 체포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바라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나섰다. 전주 관장은 이 읍을 처음 문초하는 과정에서 그의 전력을 알아내고는 혹독하게 매질을 시켰다. 그는 비록 키가 작고 몸집도 보잘것없었지만, 신앙의 인내로 형벌을 참아내 보는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문초와 형벌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만, 이 읍의 신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자 관장은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그를 옥에 가두어 두도록 하였다.

이후, 이일인 읍은 김대권 베드로 등과 함께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그동안 그는 세 번이나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면서 한결같이 목숨 건지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임금의 명으로 전주 장터(숯정어)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72세였다.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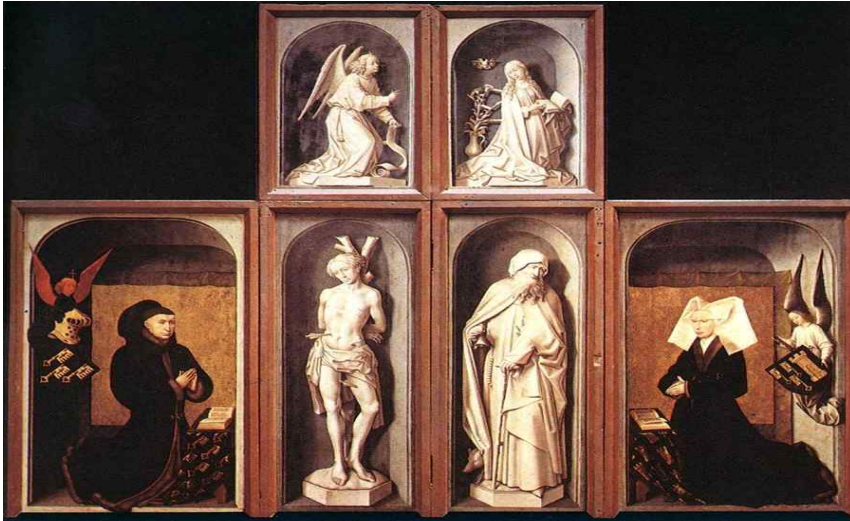


길이 너무 멀어 보일 때,	그런 님께서
어둠이 밀려올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일이 다 틀어지고	희망을 안고
친구도 찾을 수 없을 때,	오늘을 살았으면
그때는, 그때는 기억하세요.	좋겠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조로지 핀취즈’ 의 시,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중어시)

상화이야기

본 제단화, 최후의 심판



지난주에 살펴본 본 병원에 주경당에는 롤랭이 후원하고 바이텐이 제작한, 펼쳤을 때 프레임을 제외하고 5m가 넘는 거대한 제단화가 놓여있는데, 닫혀 있을 때는 상단에 2개, 하단에 4개의 면으로 되어 있다.

**달히 길버**  
 로지아 판 대어 바이텐,  
 1445년 ~ 1450년 제작  
 오크 위 유희, 220x548cm  
 (프레임 제외 크기)  
 본 병원 박물관



세부도

상단에는 수태고지가, 하단에는 세바스찬 성인(흑사병에서 보호해준다고 믿었던)과 안토니 성인(본 병원이 헌정된 성인)이 그리스아이유(흑백의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그림)로 제작되었고, 양옆에는 본 병원과 제단화를 후원한 롤랭부부가 자신 가문의 문장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배경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많은 학자들은 롤랭 뒤의 온통 검붉은 천사를 주목했는데, 금으로 제작된 투구와 열쇠가 그려진 문장을 들고 있는 이 천사는 마치 환영처럼 보인다.

상단에 수태고지화에서는 왼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른쪽에는 백합이 꽂힌 화병을 뒤로하고, 손에 책을 들고 계신 성모님이 이에 답하시는 모습과,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비록 그림일지라도 가브리엘이 들고 있는 종이 두루마리는 마치 돌로 제작된 조각상의 것처럼 보인다.

이그림의 바로 옆에는 이 그림에 그려진 후원자인 롤랭 수상 부부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디림 제3주일: 상요셉(부시교) 김영송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12월 15일(주일) 11:00
- 데레사회 송년미사  
 때·곳: 12월 18일(수) 11:00, 교구청 1층 소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